인생의 모든 짐을 과녁으로 바꾸자

(시편 68:1~35)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21.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짐을 과녁으로 바꾸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모든 짐을 과녁으로 바꾸자'
이솝 우화에는 당나귀가 자주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말과 당나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당나귀를 이용해 짐을 날랐습니다. 당나귀는 무거운 짐 때문에 제대로 서있기조차 힘든데, 말은 얼마 안 되는 짐을 얹고서 발걸음도 가볍게 앞질러 나아갑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던 당나귀가 말에게 '여보게 친구! 내 등에 얹힌 짐이 너무 무거워 이대로는 오래 걷지 못할 것 같아.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내 짐을 조금만 덜어주면 안 되겠나?'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짐을 지고 홀가분하게 걷던 말은 당나귀의 애원을 못 들은 채 앞서 나갔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지칠 대로 지친 당나귀가 땅바닥에 고꾸라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죽은 당나귀가 지고 있던 짐을 모조리 말 등에 올렸고, 거기에 더해 당나귀의 시체까지 메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말은 '진작 친구를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짐에다 죽은 친구까지 메고 가게 되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꼬.'라고 신음하며 후회하였습니다. 이 우화는 이기심을 경계하고 이웃을 도우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나귀에 관한 우화가 있습니다. 소금을 짊어진 당나귀가 어쩌다 개울에 빠졌는데 소금이 다 녹아서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부러 개울에 빠져 짐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당나귀의 꾀를 알아 챈 주인이 이번에는 당나귀의 등에 솜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도 당나귀는 의도적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물에 젖은 솜은 몇 배나 더 무거워져서 일어서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믿음과 연관 지어서 살펴보자면 '가벼우면 살고 무거우면 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곧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증거는 현세에서 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약속을 받은 증거는 짐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우면 살고 무거우면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짐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면 그 짐들의 무게가 어떻게 사라진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세상을 향하면 인생의 짐이 생겨납니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원하는 대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짐이 되고, 원치 않는 대상은 없애야 한다는 짐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 했을 때에 밧세바는 가져야 한다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없애야 하는 짐이 되었습니다.

마음 채움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짐과 없앰의 두 가지 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랑은 가져야 함의 짐이고 증오는 없애야 함의 짐입니다. 부자 됨은 가져야 하는 짐이고 가난은 없애야 하는 짐입니다. 건강은 가져야 하는 짐이고 질병은 없애야 하는 짐입니다. 취직은 가져야 하는 짐이고 실직은 없애야 하는 짐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가짐과 없앰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채움을 위해서 세상 대신에 하늘을 향한다면 가짐과 없앰의 두 짐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 인생의 짐의 무중력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인생의 짐의 무게를 느끼질 못합니다. TV에서 보면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선 벽에 붙은 손잡이를 잡고 밀었을 뿐인데 몸이 미끄러지듯 날아갑니다. 물을 뿌려도 흐르지 않고 공중에서 방울방울 떠 있을 뿐입니다. 100kg인 거구일지라도 무중력 상태에서는 0kg입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도 이러한 무중력 공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인생의 짐이 되는 이유는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느껴지는 상태까지 자녀를 끌고 가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들이 있고, 없애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에 결혼생활은 짐이 됩니다. 배우자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는다면 배우자나 자녀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사업 자체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사업이 짐이 되는 이유는 사업을 잘 해서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사업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벗어버린 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이 실현되고 적용되는 과녁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짐이 과녁으로 바뀌는 무중력

공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 왕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에게 승리한 후로 추정됩니다.
길고 내용도 제법 복잡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기도와 찬양, 감사와 신탁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된 내용 전체가 상당히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나의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민의 삶은 하나님이 세 곳에 계시는 중에 진행된다는 틀입니다.
하나님이 세 군데에 계시는 삼각형 안에서 삶이 진행될 때에 인생 짐의 무중력 상태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삼각형 안에는 인생의 어떤 과제나 관계도 무게가 없는 무중력 상태입니다. 선민은 이 삼각형 안에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세 곳을 구름 위 하늘, 성막(성전) 안의 성소,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름 위 하늘에 계심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하고 33절에서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 위는 곧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서 성소가 언급됩니다.
5절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이라고 하였고 16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이라는 곳도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고 나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움직이는 성막의 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서도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였고 35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라고 하였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하였고 마지막 35절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라고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세 곳에서 선민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서는 성소에 이름을 두셨고, 선민들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이 세 꼭짓점이 이어지는 삼각형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짐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또한 장사와 사업의 현장과 가장의 가족부양의 책임이 삼각형 안에 있을 때에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 회사는 날마다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세 꼭짓점이 만드는 삼각형 안으로 보낸다면,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장도 전혀 부담으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짐의 무게가 사라지는 신기한 무중력 공간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이 무중력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 왕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구절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세 곳이 모두 언급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삼각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라는 것은 곧 성전을 향함을 뜻합니다. 몸은 삶의 현장에 있지만 마음을 성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늘에 계시며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성전으로 보내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서 그 품에 안겨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빠져나와 몸만 남아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의 화살이 꽂히는 과녁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삼각형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마음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보시며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향하지 않고 마음을 삶의 현장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끌어 올리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만이 거하셔야 될 곳인데 그곳에 세상의 가치를 담음으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러워진 마음을 그대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하락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번제단이 있는 성전으로 보내 죽은 것으로 인정한다면 새로 태어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여기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품에 안아주실 사람들을 찾으시되 그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행을 행하는 삶 전체를 보고 계시지만, 그 품에 안으시기 위한 자들을 찾으시는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짐을 지고 살며 더렵혀집니다. 자녀를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에는 곧 자녀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김치가 묻는 것과 같습니다. 김치는 입에 들어가는 깨끗한 것이고, 하얀 블라우스도 깨끗한 것이지만 그 둘이 합쳐지면 더러움이 발

생합니다. 자녀는 마치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김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실크 블라우스이고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김치 같은 자녀를 담았으니 더러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녀를 담음으로서 더러워진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깨끗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면 삶에 현장에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적용됩니다. 나의 짐이었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적중하는 과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생 짐의 무중력 공간인 하나님이 계신 세 꼭짓점이 만드는 삼각형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습이 마치 밑변으로부터 수직선이 생기는 이등변삼각형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 즉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이 수직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땅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십자가로 보내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삼각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 짐의 무중력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벗어버린 모든 짐들은 하나님의 과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원수'라는 단어가 1절 21절 23절에서 세 번 나옵니다.
이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삼각형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원수들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사업하는 현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솝 우화에 나오는 당나귀가 말에게 짐을 덜어달라고 했듯이, 짐을 나누어지자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짐을 지고 살다가 무거움에 짓눌려 죽게 됩니다. 사업이 잘 돼도 짐이고 안 돼도 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관리가 짐이 됩니다. 짐 진 삶에 행복과 만족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갖고 싶은 짐과 우리야를 없애고자 하는 짐을 졌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짐과 없앰의 짐만 지고 산다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 어떠한 짐을 성공적으로 진다고 해서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을 짊어짐에 만족과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즉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며, 하늘에는 하나님의 존재로 계시며,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이 삼각형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인생의 짐은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무중력 공간이 만나집니다.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모든 삶의 무게가 제로가 되는 무중력 공간으로 들어가서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짐들을 벗어버림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이 꽂히는 과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과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십자가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져야 할 모든 짐들은 하나님의 과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인생의 짐의 무게가 사라지는 무중력 공간인 하나님의 삼각형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삼각형을 벗어난 원수의 삶이 결코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